

1934년 三南 水災民을 위한 기생들의 구제 활동

崔喜英*

I. 머리말	1934년 삼남 수재민 구제 활동
II. 공연을 통한 기생의 1934년 삼남 수재민 구제 활동	IV. 기생들의 1934년 삼남 수재민 구제 활동의 의미
III. 물자 보급과 방문을 통한 기생의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34년 삼남 수재민을 위한 기생들의 구제 활동을 고찰하였다. 1934년 삼남 수재는 ‘최악의 수해’로 기록된 재해 중 하나로 광범위한 전라, 경상, 충청 지역에 걸친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사건이었다. 국내 최초로 비행기 취재를 통해 생생한 참상이 전국에 알려지며 전 국민의 구제 손길이 이어졌고 이 중에서도 기생조직은 약 3개월에 걸쳐 구제 활동에 동참하였다. 1934년 삼남 수재민 구제 활동에 참여한 권번은 약 30곳에 달하여 수재로 인해 기근의 선상에 해매고 있던 동포들에게 큰 도움을 제공했다. 대부분의 구제 활동은 공연을 개최하여 번 수익금을 수재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물자 보급과 방문을 통해서도 기생의 수재민을 위한 활동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특히 구제 공연 개최에 있어 피해지인 삼남 외에 서북 지방 기생의 공헌이 두드러진 점이 특기할 만하다.

공연, 의연품 지급, 방문 등을 통한 기생의 1934년 삼남 수재민 구제 활동은 주최나 후원을 담당했던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신문 기사에 상세히 기록되었다. 관련 기사문에서 기생은 “공익에 보탬이 되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으며 구제 활동

* 노턴일리노이대학교 역사학과 객원연구원

에 뛰어들기 전 정면을 응시하고 의연한 모습을 담은 기생의 사진은 당시 연애로 인한 자살, 도주, 치정극, 사기, 폭행 등의 사건, 사고 속에 묘사된 기생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기생의 1934년 수재민 구제 활동은 『장한』 글에서도 표출된 바 있는 신여성으로서 공익활동에 힘쓰는 한 국민으로서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 욕망을 담고 있으며 이는 경성이나 평양에 비해 그 활동 기록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삼남과 서북 지방 기생을 포함한 전국 기생에게 적용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구제 활동을 알리며 공익활동에 찬사를 보내는 신문 기사문에서조차 여전히 기생집단을 부정적 이미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34년 기생들의 삼남 수재민 구제 활동은 도움을 직접 받았던 수재민과 구제 활동에 후원 혹은 주최로 참여한 신문사 인사들에게 기생을 향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에 일조하였으나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전히 떨쳐 버리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주제어 : 기생, 권번, 1930년대 초 한국, 구제 활동, 수재민구제음악회, 구제품, 『장한』, 신여성

I. 머리말

본 연구는 1934년 全羅, 慶尙, 忠淸에 걸친 三南 水災民 救濟를 위한 妓生들의 구제 활동을 고찰한다. 식민지시기를 맞으며 기생은 일제의 강제적 단속령에 따라 경찰청에 신고하여 허가증을 받고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등 그 활동에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는 妓生組合 혹은 券番(이하 권번으로 통칭)¹⁾이 일제 통치수단의 하나로 받아들인 자본주의를 공연과 교육에 적용하여 1920년대 극장에서 전통음악공연이 황금기를 맞는 시기이기도 하다.²⁾ 특히 1930년대는 기생/삼패의 위계화는 사라졌지만 공연계 주식회사의 효시인 권번을 중심으로 기생들의 공연 양상과 레퍼토리가 본격적으로 다양화되어 나갔다. 또한 기생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남아 있었으나 기생에 관련된 스캔들이 꾸준히 기사화되고, 이들의 인터뷰가 자주 지면에 실리면서 기생에 대한 호기심과 멸시가 공존한 시기이기도 하다. 필자는 일제강점기 기생들의 활동을 조사하던 중에 상당수의 1934년 삼남 수재민 구제 활동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다. 191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기생조직의 난민 구제 활동에 정점을 찍는 이 삼남 수재민 구제 활동은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활동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물론 1934년 구제 활동에 관한 많은 숫자의 기록³⁾은 당시 재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7월 영호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철도가 끊어질 정도의 큰 수해를 입었다.⁴⁾ 다수의 수재민이 노숙, 비위생, 질병, 기아로 건강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가장 혹심한 피해를 받은 이들은 농민들로 계속되는 재해에 부채로

1) 기생조합은 일제강점기 기생들의 활동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던 일종의 상업 조직으로 1915년부터 일본식 표현인 권번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1930년대는 권번으로 불렸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기관을 권번으로 통칭하도록 한다.

2) 식민지기 기생의 지위에 관한 담론은 권도희, 「20세기 기생의 음악사회사적 연구」, 『한국음악연구』 29, 한국국악학회, 2001, 319~344면; 권도희, 『한국 근대음악 사회사』, 민속원, 2004; 황미연, 「전라북도 권번의 운영과 기생의 활동을 통한 식민지 근대성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2010; 황미연, 「일제강점기 기생의 사회적 활동과 그 역사적 의미」, 『민속학연구』 28, 국립민속박물관, 2011, 135~158면 참조.

3) 예를 들어 NAVER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기사 원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수해'를 검색하면 일제강점 시기 중 가장 많은 숫자의 기사가 1934년 삼남지역 홍수에 관한 것으로 나온다.

4) 「水害救濟에 對하여 深刻한 水災」, 『동아일보』, 1934.7.26.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었다.⁵⁾ 피해액만 오천만원 정도를 예상했으며 피해민은 삼십만명에 달하였다. 그 범위가 실로 광범위하여 1925년 이후 최악의 수해로 평가되었다.⁶⁾ 더욱이 조선 삼남 일대가 수해를 입은 지 1년도 채 안 되어 닥친 재해였기에 지역민의 상심은 더욱 컸다. 원인이 하천의 제방 決壤에 의한 인재로 판명되자 수재민들의 불평은 더욱 높아져 갔다.⁷⁾

1934년 삼남 수해는 그 심각성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먼저 국내 최초로 비행기 취재를 통해 전국에 그 참상을 전했던 사건이다. 조선일보는 즉각 구호금 모집에 나서는 동시에 비행기를 이용한 취재 및 지원 활동에 나섰다. 당시 화제가 된 취재용 비행기는 프랑스제로 일본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조종사는 愼鏞瑬(1901~1961)이었다.⁸⁾ 촬영팀은 현장 상황을 공중에서 영사기로 담아 7월 26일 기록영화 형태로 서울시민에게 수재 상황을 생생하게 알렸다. 신용옥은 『조선일보』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4회에 걸쳐 「三南 災地 調査 飛行記」를 연재해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이뤄진 항공취재의 소감을 기록으로 남겼고,⁹⁾ 촬영 자료는 광장과 학교 일대에서 상영되었다.¹⁰⁾ 1934년 재해의 생생한 참상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며 전국에서 구제 손길이 이어졌다. 대부분은 수재 의연 금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에 참여한 이들은 구제 활동을 주최한 신문사 일동을 비롯하여 주식회사나 사업가 및 지역 유지 등이 주를 이루었다.¹¹⁾ 이들과 어깨를 견주며 구제에 동참한 눈에 띄는 단체가 있었으니 바로 기생조직이었다.

5) 「三南水害와 當局 時速히 救急에 着手하라」, 『동아일보』, 1934.7.23.

6) 「三南의 被害額만 五千萬圓을 豫想」, 『조선일보』, 1934.7.26.

7) 「水災原因調査次 技師를 派遣」, 『조선일보』, 1934.7.24.

8) 신용옥은 당시 33세였으며 일본의 오쿠리(小栗)비행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해 1933년 실라 헬리콥터학교 조종과를 졸업하고 막 귀국한 비행 분야의 개척자였다. 1924년 신용옥은 조선비행학교를 설립한다. 이는 한반도 최초의 상업 항공사인 대한항공공사(이후, 대한항공)의 모태이다. 조선의 항공사업과 관련된 담론은 김기동, 「중일전쟁 발발 직후 고사가 사다오(小坂貞雄)의 「조선의 항공사업(朝鮮の航空事業)」 서술과 그 목적」, 『공사논문집』 71(1), 공군사관학교, 2020 참조.

9) 「격동의 역사와 함께한 조선일보 90년」 1934년 水害때 국내 첫 항공취재 僻地 신문 수송에도 전용기 띄워」, 『조선일보』, 2010.1.22.

10) 「本社特撮, 水害 活寫第二報公開」, 『동아일보』, 1934.7.27.

11) 예를 들어 1934년 7월 24일 기사에 기록된 바 기부 명단에 동아일보 직원 일동, 신기신성당약, 품직수입주식회사, 시내 계동 김성수 씨, 성북리 김연수씨, 광덕상회 현용건씨, 해동은행원 일동, 경성방직회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삼남 수재 의연금」, 『동아일보』 1934년 7월 24일자 참조.

기생들의 1934년 삼남지역 수재민 돕기 운동 내용과 의의를 살펴볼 본 논문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기생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을 재조명한 연구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강소영,¹²⁾ 서지영,¹³⁾ 신현규¹⁴⁾는 기생이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생 잡지 『장한』을 발간하고, 자신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파업을 자행하였음을 밝혔다. 나아가 이동근¹⁵⁾을 중심으로 밝혀진 기생의 3.1운동 참여는 기생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사회 활동사를 예증해준다. 다만 기생들의 구제 활동은 상기한 연구에서 단편적으로만 언급된 정도에 그쳐 그 연구가 미흡하였다. 이에 필자는 1934년 삼남 수재민 구제 활동을 지역 신문과 잡지¹⁶⁾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 구제 활동이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펼쳐졌으며 기생들의 공익을 위한 대대적 움직임을 대중에게 널리 알려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욕망이 녹아든 운동이었음을 밝힌다. 나아가 1930년대에 극장공연과 박람회 배치되면서 공적 영역에서 활동할 기회가 많아진 기생이 펼친 1934년 공익활동과 인정 투쟁 모두 신여성을 표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II. 공연을 통한 기생의 1934년 삼남 수재민 구제 활동

기생들의 1934년 삼남 수재민 구제 활동은 7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다. 참여 권변과 기생은 삼남을 시작으로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어 나갔으며 대부

12) 강소영, 「기생의 은유화 방식을 통해 본 기생의 현실과 그들의 욕망」, 『한국고전연구』, 2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109~139면.

13) 서지영, 「식민지 시대 기생연구 II-기생조합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고전문학여성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433~464면; 서지영, 「식민지 시대 기생 연구 III-기생 잡지 〈장한〉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347~385면.

14) 신현규, 『꽃을 잡고』, 경덕출판사, 2005; 신현규, 『기생 이야기』, 살림, 2007; 신현규, 『기생, 조선을 사로잡다』, 어문학사, 2010.

15) 이동근, 「의기 수원 기생들의 3.1운동」, 『수원 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 가족여성정책과, 2008, 111~152면; 이동근, 「1910년대 妓生의 존재 양상과 3·1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127~166면.

16) 신문이나 잡지 기사를 인용할 시에 필자가 그 일부를 현대문체로 바꾸어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기사문에 “예기”는 “기생”으로 바꾸어 분석하였다.

분의 구제 활동은 공연을 개최하여 수익금을 수재민 측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기 순으로 공연을 통한 기생의 삼남 수재민 구제 활동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1934년 삼남 수재민 구제를 위한 기생들의 공연

날짜(년/월)	참여 권번 ¹⁷⁾	공연내용	장소 ¹⁸⁾	출처
1934/7	慶州 권번		경주극장	매일
1934/7	大田 권번		대전극장	조선
1934/8	夜明 권번		고려청년회	동아
1934/8	晉州 권번		진주극장	동아
1934/8	天安 권번		천안극장	동아
1934/8	開城 會寧 권번		회령극장	동아
1934/8	咸興 盤龍 권번			
1934/8	兩館 권번		천성여관	동아
1934/8	達城 권번		만경관	동아
1934/8	大邱 권번	노래	만경관	조선
1934/8	淸津 권번	판소리		동아
1934/8	牙山 太陽館, 太西館, 長春館 소속 기생		천락관	동아
1934/8	奉化 醉仙館, 松竹館 소속 기생		춘성여관	조선
1934/8	長津 권번		하갈회관	조선
1934/8	漬津 권번			조선
1934/8	春城 권번		원산관	동아
1934/8	安州 권번	극, 노래		동아
1934/8	光州 권번	판소리	제국관	조선
1934/8	木浦 권번		폭포극장	동아
1934/8	馬山 南鮮 권번		구마산극장	동아
1934/9	安岳 권번		태평극장	조선
1934/9	忠州 권번			동아
1934/9	김초향 외, 達城 권번	노래	대구회관	조선
1934/9	會寧 권번			조선

1934/9	木浦 권번			조선
1934/9	安城 권번		가설극장	동아
1934/9	黃州 권번		선일운송부차고	동아
1934/9	晉州 권번 박중근 외 6인		남일물산주식회사 후정	조선
1934/10	溫泉 권번		온천 신관	조선
1934/10	南海 권번, 晉州 기생 김상옥		남해불교회관	동아
1934/10	新義州 朝鮮 권번		신선극장	동아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34년 삼남 수재민 구제 활동에 참여한 권번은 전국에 걸쳐 약 30곳에 달하였다. 개인적으로 구제 공연을 개최하거나 여러 권번이 함께 연합하여 구제 공연을 선보인 예도 있었다. 요릿집에 전속계약으로 소속된 기생 주도로 개최된 구제 공연도 있었는데 충청남도 아산과 경상북도 봉화 권번 기생들의 구제음악회가 그 예이다.

지역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자연스럽게 피해 지역 내 권번 기생들의 활동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진주지역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었으나 헐벗고 굶주림에 떨고 있는 동포들을 돕고자 8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수해구제금모집음악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심지어 나이가 많은 진주 老妓들이 자발적으로 가무를 선보여 인기가 집중되었다. 해당 권번 측은 공연 무대 준비뿐만 아니라 행사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후원하기도 했다.¹⁹⁾ 8월 8일은 대구권번 소속 기생이 총출동하여 자선 연주회를 열었음에 초만원의 성황을 이루었고 관중의 갈채 속에서 순서가 진행되었다. 기생들의 공연에 큰 감동을 받은 관객들은 행사가 끝난 후 의연품을 전달하기도 했다.²⁰⁾ 바로 다음 날에는 대구 달성권번 주최로 소속 기생이 구제연주회를 개최하였으며 여러 신문지국의 후원이 있었다. 비용 일체를 주최자인 권번에서 모두 부담하였으며 전 수입금은 수재민에게 전달되었다. 이는 15일 마산의 남선권번으로 이어졌다. 남선

17) 권번은 드물게 藝妓組合으로도 기록되어 있으나 권번으로 통칭해서 정리하였다.

18) 보통 劇場은 座로도 기록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극장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정리하였다.

19) 「三南同胞救濟에 各處에서 呼應活動」, 『동아일보』, 1934.8.17.

20) 「大邱券番娘子軍 同情大演奏會」, 『조선일보』, 1934.8.10.

권번 기생은 지역 극장에서 동정연주회를 개최한 후 지역 동아일보사 측에 공연 수입금을 전달해 달라고 의뢰하였다.²¹⁾ 비슷한 내용의 미담이 광주, 목포, 남해 권번 기생의 공연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퍼져 나갔다.

구제 공연은 이북지역으로까지 이어졌다. 8월 4일과 5일 양일간 고려청년회관에서 개성의 야명권번 기생이 총출연하여 수해구제음악대회를 개최하였다. 함흥 지역에서도 같은 날 삼남 수해 참해가 “한번 세상에 전하게 되자 국내외를 막론하고 뜨거운 구제금이 매일 물밀 듯이 모아드는 것이 전해지고 있는 바거니와” 반룡권번 기생 40여 명이 수재민을 위한 공연을 개최하겠다고 자진하여 나섰다. 이에 조선일보 함흥 지국 후원으로 동명극장에서 구제연주회가 개최되었다.²²⁾ 함흥에서 멀지 않은 장진에서도 같은 달 25일 하갈공회당에서 삼남수해동정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장진권번 소속 韓明玉, 白雲仙, 鄭京月 외 8명의 기생이 삼남 이재민 소식을 듣자마자 기생연주회를 개최하고자 몸소 조선일보 지국을 방문했고 이에 직원 일동이 감동하여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관객은 만원을 이루었고 감명받은 지역 유지들의 동정금 전달이 이어졌다.²³⁾ 황해도 안악에서도 8월 29일, 30일 이틀간 안악권번 주최로 수해구제 연주와 연극을 선보였다. 이 공연은 몇 시간 전부터 모여드는 관람객으로 만원을 이루었기에 상당한 동정금을 모금하여 전달할 수 있었다.²⁴⁾ 9월 9일과 10일 양일간 펼쳐진 황주기생 구제연주대회 또한 대성황을 이루어 구제금 전달을 통해 수재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²⁵⁾ 구제 공연 행렬의 끝 무렵에 해당하는 10월 초 평안북도 신의주에 위치한 조선권번에서는 창립 3주년을 맞이하여 삼남수재구제연주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입장수가 천여 명을 넘어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전한다.²⁶⁾

뒤늦게나마 수도권 지역 기생들의 구제 공연 동참도 이어졌다. 예를 들어 안성권번을 들 수 있다. 경기도 안성에서 8월 10일 동아일보사에서 촬영한 삼남수해활동사진을 보여주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오천여명의 관중이 모여들어 세 번에 나누어 입장시

21) 「놀에 판돈내는 藝妓 傾囊한 魚市雇人」, 『동아일보』, 1934.8.15.

22) 「水災同情演奏會」, 『조선일보』, 1934.8.5.

23) 「長津支局主催 救濟演奏盛況」, 『조선일보』, 1934.09.04.

24) 「安岳에서도 同情演奏演劇」, 『조선일보』, 1934.08.23; 「安岳에서는 同情演奏盛況」, 『조선일보』, 1934.09.04.

25) 「三南水災同情 演奏音樂의 밤」, 『조선일보』, 1934.9.12.

26) 「水災同胞救濟演奏會」, 『동아일보』, 1934.10.7.

키고 난 후에도 여전히 돌아간 이들이 있었다. 지역 주민들이 생생한 영상에 담긴 타지역 수해참사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음을 시사한다.²⁷⁾ 이러한 관심을 구제 화한 안성권번 기생들은 9월 7일 조선일보 안성지국 주최로 수해구제연주회를 가설 극장에서 개최하였고 역시 대성황을 이루었다. 개최 전인 6일부터 안성지역 요리집 소속 기생들이 입장권을 직접 예매하여 판매하였으며 모금한 입장료 중 공연 무대 설치 등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익금을 수재민에게 전달하였다.²⁸⁾

전국적으로 퍼져 나간 1934년 기생의 삼남 수재민 구제 공연에서 특기할 만한 부분은 삼남지역 외에 서북 지방 권번의 참여가 두드러진 점이다. 당시 가장 큰 규모의 기생을 보유하여 여러 면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던 경성이나 평양 내 권번이 구제 공연을 주도하거나 구제 공연에 참여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물론 이들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물자 보급을 통한 구제 활동에는 참여하였다. 다만 당시 규모나 활동 면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았을 경성, 평양 기생의 구제 공연이 부재했던 반면 상대적으로 활동 기록이 소략한 삼남 및 서북 기생들의 구제 활약이 두드러진 점은 분명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하겠다.²⁹⁾

한편 공연 참가자 면에서 눈에 띄는 구제 공연이 있었으니 바로 ‘예술의 밤’이다. 10월 남해권번 기생들과 진주 기생 金相玉의 참여로 남해불교회관에서 펼친 이 구제 공연은 동아일보 남해지국 주최 구제 공연에 기생들이 동정 출연한 형태로 기생들은 남해기독교 찬양대, 남해불교회 악사의 독창과 합창에 이은 무대에 등장하였다. 다른 단체와 협력하여 구제 공연을 벌인 예로 볼 수 있다.³⁰⁾ 비슷한 예로 원산 춘성권번 기생은 서커스단과 연합하여 수재동정연합대공연을 개최하였다.³¹⁾ 또 다른 특기할만한 공연 중 하나는 동아, 중앙, 조선 세 개 지국 공동주최로 개최된 구제명창대회였다. 이때 광주권번 소속 기생과 악공의 후원이 있었다. 일류명창남녀 이십여 명이 총동원되어 이틀간 벌어진 이 대회는 실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기생이 단순히 공연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판소리 창자들을 포섭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데에 후원금을 제공하는

27) 「本報水害活寫 安城서 盛況」, 『동아일보』, 1934.08.16.

28) 「安城支局主催 水害救濟演奏 大盛況裡終了」, 『조선일보』, 1934.09.13.

29) 이에 관한 논의는 ‘IV. 기생들의 1934년 삼남 수재민 구제 활동의 의미’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30) 「水害同情音樂 南海支局主催」, 『동아일보』, 1934.10.1.

31) 「券番, 씨커스團聯合 元山서 公演」, 『동아일보』, 1934.08.17.

방식으로까지 구제 활동에 동참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표 1〉에서 열거한 공연 내 레퍼토리는 행사를 기록한 기사 대부분이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구체적 파악이 어렵다. 다만 공연 장르에 관한 기록이 포함된 달성, 광주, 안주, 청진, 대구 권번의 8, 9월 구제공연내용을 통해 판소리를 포함한 성악곡 공연이 큰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안악권번 주최 공연 참여자를 묘사한 사진에 반주를 담당한 악사들과 함께 색동저고리, 승무 등의 다양한 전통춤 의복을 입은 출연진들이 묘사되어 있어 기생들의 구제 공연 레퍼토리가 좀 더 다양하게 펼쳐진 예도 있었다.³²⁾ 대체로 전통적인 기생의 레퍼토리로 자신들의 기예를 보인 자리였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듯하다.

1934년 수재민 구제연주회는 10월 초가 되자 수그러들었다. 총 삼 개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진행된 삼남 수재민을 위한 기생들의 구제 활동은 대부분 지역 신문사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몇몇은 권번이 직접 후원까지 담당하며 기근의 선상에 헤매고 있던 삼남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일부 기생은 단순히 공연 무대에 설 뿐만 아니라 공연행사 시작 전부터 길거리에 나가 입장권을 판매하는 등의 적극성도 보였다. 매 구제공연행사는 만석으로 성황리에 마치었으며 기생들의 공연을 보고 감동한 지역 유지들이 수재민에 의연금을 보내기도 했다.

Ⅲ. 물자 보급과 방문을 통한 기생의 1934년 삼남 수재민 구제 활동

물자 보급과 방문을 통해서도 기생의 수재민 구제 활동이 펼쳐졌다. 연주회 수익금과 함께 기생들이 개인 돈을 모아 함께 수재민에게 전달하였는데 이 또한 전국에 걸친 권번 소속 기생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행해졌다. 다만 공연을 통한 구제 활동 기록에서 보이지 않았던 경성 기생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아래에 인용된 기사문은 이러한 기생의 수재민 돕기 운동을 묘사하고 있다.

32) 「三南水害救濟運動」, 『동아일보』, 1934년 9월 5일자 기사문에 삽입된 사진 참조.

진남포에 있는 기생들은 삼남 수재의 참상과 이재 동포의 비절 참절한 정경을 듣고서 누구의 권고나 요구를 들은 바도 없이 자발적으로 지난 1일 아침 그 권변에 회집하여 일금 이십원을 모아 가지고 이것을 이재 동포에게 보내 달라고 2일 본보 진남포 지국에 의탁하였다.³³⁾

금번대 해를 눈 앞에 목격한 부산 봉내권변 기생 일동은 이렇게 참경에 빠진 이재민들을 그저 보고 있을 수 없다하여 기생 이십명의 총출동으로 각기 전대를 메고 부산 내를 다니면서 가가호호를 방문하고 구제품으로 쌀과 의복을 얻어지고 즉시 재해지 구포로 가서 손수 밥을 지어 펴고 굶주린 피난민에게 쌀과 의복을 나누어주니 일반민들은 그의 성의에 감격하였다 한다.³⁴⁾

그 외에도 8월 9일에는 함흥 반용권변 기생 일동이, 8월 24일에는 원산 춘성권변 기생 일동이 연금품을 전달한 내용이 기사 한 면을 차지하는 「삼남수해의 연금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³⁵⁾ 14일 인천권변 기생 삼십여 명 일동은 현금 삼십원오십전을 조선일보 지국을 통해 기부하였다.³⁶⁾ 이어 한남권변 기생들은 16일까지 현금 십육원 오십전을 거두어 수재민에게 전달해 달라고 동아일보 본사로 보냈다.³⁷⁾ 28일은 광주 권변 기생 이십 명이 금십원을 전달하여 “눈물과 동족애에 열킨 가지가지의 미담” 기록에 포함되었다.³⁸⁾ 위의 하단 인용문과 비슷하게 금전과 함께 옷을 전달하여 구제에 동참한 사례도 많았다. 가령 『조선일보』 8월 10일 기사에 따르면 예천 기생이 “옷이 없어 울고 있는 예천 이재민을 위해” 돈과 옷을 모아서 수재민에게 전달하였다.³⁹⁾ 기생의 이름과 함께 몇 점의 의복을 제공했는지 목록을 나열하는 등 구체적인 구제 활동을 기록한 기사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동포를 돕고자 한 이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33) 「紅燈下의人情 南浦妓生の 同情」, 『동아일보』, 1934.8.7.

34) 「釜山藝妓出動 災民救濟에 努力」, 『동아일보』, 1934.7.28.

35) 「三南水害義捐金品」, 『조선일보』, 1934.8.9; 「三南水災義捐金品」, 『동아일보』, 1934.8.24.

36) 「仁川府民 義捐動員」, 『조선일보』, 1934.8.14.

37) 「漢南券番同情」, 『동아일보』, 1934.8.17.

38) 「本報光州支局에 逕至하는 同情金」, 『조선일보』, 1934.8.28.

39) 「醴泉妓生美舉」, 『조선일보』, 1934.08.10.

개인적으로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례도 등장한다. 예를 들어 한성권번 기생 柳錦挑는 현금 십원을 역시 본사로 보내 전달하기를 부탁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⁴⁰⁾ 8월 29일 “水害救濟에 발 벗고 나선” 달성권번 기생 金月香과 鄭小島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더욱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대구 달성권번 기생 김월향, 정소도 두 기생은 수해의 참보를 접하고 이재민의 참상에 깊이 동정하여 곧 의연금 모집에 나섰다 한다. 그리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십전 이십 전 푼돈이 모아서 피해 지역에 보내인 것을 필두로 연주회 때 혹은 다른 단체의 활동에 또 금번 본보 대구지국 주최의 수해구제 현제명 독창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침식을 잊고 나서서 한 푼이라도 이재민의 손에 더 가도록 피나는 노력을 하여 일반에 많은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⁴¹⁾

이러한 기생의 삼남 수재민을 위한 구호 금품 전달은 10월 초까지 이어졌다. 일금 십칠원삼십오전을 전달한 경성의 대항권번 기생 일동이 그 예이다.⁴²⁾ 공연과 마찬가지로 삼남 수재민 구제를 위한 의연품 전달과 방문이 전국적 규모로 몇 달에 걸쳐 진행된 만큼 수재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IV. 기생들의 1934년 삼남 수재민 구제 활동의 의미

1934년 전국에 걸친 기생들의 구제 손길은 이들을 ‘공익’을 위해 힘쓰는 이들로 기록하고 있다. 물론 기생이 사회적 활동을 통해 공적 사회의 일원으로 일컬어지는 사례는 꽤 오래전부터 종종 있었다. 하지만 1934년 삼남 수재민 구제 활동만큼 전국 규모로 빠르게 구제 활동이 퍼져 나간 적은 없었기에 그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생이 공익활동을 펼친 ‘국민’ 대열에 참여한 증거는 일제강점 이전인 18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생이 獨立協會가 혁파된다는 말을 듣고, 萬民共同會에 성금을

40) 「禮智洞會에서도 衣類千二百餘件」, 『조선일보』, 1934.8.7.

41) 「水害救濟에 발벗고나선」, 『동아일보』, 1934.8.29.

42) 「三南水害義捐金品」, 『조선일보』, 1934.10.3.

보낸 때이다.⁴³⁾ 기생의 기부행위는 만민공동회라는 ‘근대적 소통의 장’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띠다고 할 수 있다. 독립협회 활동 중 東萊府 기생 3인이 여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과 장소를 구하는 움직임도 있었다.⁴⁴⁾ 이러한 기생의 공익활동이 본격화되는 계기는 추모정국과 국채보상운동이었다. 1905년 乙巳條約 체결 후 자결한 민영환의 추모 행렬에 남녀노소 내외국인을 불문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대외적 활동이 제한되었던 여성들의 참여가 눈에 띄는데 이때 기생들에게도 조문이 허락되었다. 국민의 주도 아래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에 제공한 차관을 상환하고자 실시된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도 기생이 참여했다. 전 ‘국민’이 참여한 상징적 활동들에 기생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국민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⁴⁵⁾

본 연구 주제인 기생의 자연재해 피해 주민 돕기 운동은 191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1930년대에 비해서 그 숫자가 훨씬 적었으며 전국적 규모의 구제 활동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1914년 4월 시곡 기생은 일본 규수 지역 화산 폭발로 피해를 받은 한인 동포를 위해 구제 공연을 개최하고 매일신보에 공연 수익금을 전달하였다. 해외에 사는 동포에까지 도움의 손길을 뻗은 기생들의 공연에 매일신보사 측은 특별히 감사 편지를 전달했고 이를 다 함께 읽은 기생들이 크게 감동하였다.⁴⁶⁾ 1910년대에 산발적으로 행해졌던 기생들의 난민 구제 활동은 일본이 3·1운동 이후 무단 통치의 한계를 느끼고 조선인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자 조선인 언론과 집회를 허가하고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개편한 ‘문화통치’ 시기인 1920년대에 이르러 더욱 빈번하게 등장한다. 1922년 황해도 수재민 구제, 1923년 瑞山과 群山 수재민 구제, 1928년 관북 지역 수재민 구제, 1929년 가뭄 피해민 구제 활동 등이 그 예이다. 다만 이러한 1920년대 구제 활동은 주로 피해 지역 내 기생들에 의해 펼쳐졌으며 각 구제 활동 당 최대 두세 권번만이 참여하였다.

1930년대에 이르러 기생들의 구제 공연은 거의 매년 개최된다. 1931년 만주 동포를 위한 海州, 仁川, 平壤, 大邱 기생들의 각 공연, 1922년 咸鏡 수재민을 위한 해당

43) 박애경, 「기생을 바라보는 근대의 시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349~350면.

44) 위의 논문, 350면.

45) 위의 논문, 352면.

46) 「詩谷組合에 謝狀」, 『매일신보』, 1913.12.2.

지역 기생 공연, 1933년 晉州, 淸州, 醴泉 수재민을 위한 각 해당 지역 기생들의 기금 모음 공연 등이 그 예이다. 1934년 삼남지역 수재가 발생하기 직전에도 몇 차례의 기생주최 구제 공연이 있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 『매일신보』에 폭설과 수해로 피해를 받은 주민을 위한 醴泉, 大田 기생들의 구제 공연 관련 기사가 등장한다. 이렇듯 1934년 기생들의 삼남 구제 활동은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 기생의 사회구제 활동이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는 사건이었다.

1930년대 기생의 다양한 공연 활동에 한 단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1930년대에 이르러 기생들은 이들의 유성기음반 취입과 라디오방송 출현 횟수가 증가함에 더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섭렵하게 되고 일부는 권번 소속 예기로부터 개인 여류음악가로 성장하였다.⁴⁷⁾ 본격적으로 극장 무대공연과 박람회와 성황을 이루고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에 기생들이 배치되면서 이들이 공적 영역에서 활동할 기회가 많아졌다. 공적 공간에서의 음악적 활동은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궁민 구제 활동⁴⁸⁾과 함께 사회경비 혹은 교육 관련 기관 보조를 위한 공연⁴⁹⁾, 조선 음악 정화 공연⁵⁰⁾ 등이 그 예이다.

그렇다면 1930년대 기생들의 다양한 음악적, 사회적 활동에 연장 선상에 있는 삼남 수재민 구제 활동은 기생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까? 일제강점기 시작 전후 기생의 사회 활동을 논한 박애경은 “음란한 존재로 낙인찍혔던 여성이 자발적으로 국민의 의무를 수용하고, 국채보상운동에까지 참여했던 데에서, 사회적 승인에 대한 이들의 욕망을 읽을 수 있다.”⁵¹⁾라고 주장한 바 있다. 1930년대에 이르러 기생

47) 1930년대 기생 음악 활동사에 관하여는 이재옥, 「1930年代 妓生의 音樂活動 考察」, 『한국음악사학보』 30, 한국음악사학회, 2003 참조.

48) 「窮民救濟코저 演奏會를 開催」, 『동아일보』, 1932.4.12; 「窮民同情演奏 남포기생들이」, 『동아일보』, 1934.2.2.

49) 「孤兒院爲하야 演奏大會開催」, 『조선일보』, 1932.1.8; 「馬山孤兒院爲해 晉州서名唱大會」, 『동아일보』, 1933.10.31.; 「元山貧兒同情 名唱大會盛況」, 『동아일보』, 1935.11.21.

50) 조선음률협회에 의해 개최되었다. 조선음률협회는 1930년 전국에서 활동하던 판소리명창 50여 명이 사회에서 천대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악가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쇠퇴해 가는 조선 고유의 음률을 정화 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설립된 단체이다. 「朝鮮樂淨化運動 音律協會公演」, 『조선일보』, 1930.11.17; 朝鮮音律協會 第二回公演 卅,卅一兩日團成社에서, 『조선일보』, 1931.3.29. 참조.

51) 박애경, 앞의 논문, 352면.

은 더욱 치열하게 자신들의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신여성으로서의 자부심을 표출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른 여성들과 구별된 삶을 살던 기생조직은 끊임없는 공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할 수 없었다. 이에 1934년 삼남 수재민 구제 활동을 기회 삼아 긍정적 이미지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특히 기생의 특정 지위를 언급해 가며 이들의 구제 노력에 찬사를 보내는 글이 재차 등장하고 있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몇몇 기사글을 아래에 인용한다.

남모르는 비애와 웃음 속에 잠겨있는 화류계 여자들의 자발적 기부를 더욱 민족애에 타감을 주었다.⁵²⁾

안타까운 노래를 파는 기생들과 그날그날 품을 파는 노동자들로부터 솔선하여 수재 동포를 위하는 아름다운 정신을 발로하였으므로 일반도 이에 응하여 동정의 힘이 집중되고 있는 중이라 한다.⁵³⁾

목포 권번의 열렬한 노력, 노래와 춤으로 연약한 몸에 생명줄을 달고 있는 여러 식구를 살려가는 기생 일동은 본보지국의 후원을 얻어 삼남 수재 구제연주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삼일전부터 전 권번이 총동원하여 폭염을 무릅쓰고 가가호호 방문하여 입장권을 예매하여 동연주회로 하여금 성황을 이루게 한 결과 수입금 중 오십원구십오전만은 본보지국에 기탁하여 홍수에 유실한 조상 전래의 생활 터 복구에 노력하는 재지 동포에게 전하여 달라 한다. 유한계급의 노리갯감으로 보이든 그들의 돈짜만한 가슴속에 무한한 동포애가 흘러있음은 참 가당한 일이었다.⁵⁴⁾

기생 일동은 유달리 밤을 낮 삼아 마음에 없는 웃음과 노래를 팔아가는 신세에서도 인간 고해 거칠은 파도에 먼저 시달린 쓰라린 경험에서 재지 동포를 위하여 동정의 뜻을 품고 최선의 방법을 고려하여 동정금 모집기일도 불원한 시일을 앞두고 음력 추석 명절 십오, 십육 양일밤에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양

52) 「仁川府民 義捐動員」, 『조선일보』, 1934.8.14.

53) 「놀에 판돈내는 藝妓 傾囊한 魚市雇人」, 『동아일보』, 1934.8.15.

54) 「水災에우는同胞에 輻湊하는同情의淚」, 『조선일보』, 1934.9.5.

지국 후원으로 온천 신탕 이층에서 기생연주대회를 개최하고55)

위의 예시글들은 모두 기생의 1934년 삼남 수재민 구제에 깊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시 기생에 관한 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기생은 “안타까운 노래를 파는 기생,” “남모르는 비애와 웃음 속에 잠겨있는 화류계 여자들,” “유한계급의 노리갯감,” “밤을 낮 삼아 마음에 없는 웃음과 노래를 팔아가는 신세”로 표현되고 있다. 이어지는 글은 이러한 사회적 하위계층으로 인식되던 기생들이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돕고 있어 다른 이들로 하여금 구제 활동에 참여하게 인도했다는 글로 전환되고 있으나 여전히 기생이 애환과 비애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강고한 편견과 지위의 열악함을 뚫고 기생들이 어떻게 사회적 승인을 위해 고군분투해 왔는지 예상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1934년 구제 활동이 한창 전개되던 무렵, 기생에 관한 기사는 대다수가 연애, 연애로 인한 자살, 도주, 치정극, 사기, 폭행이나 농락에 관한 것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925년과 1938년 사이의 기생 관련 기록 중 음독, 투신, 창상 포함한 자살과 관련된 기사가 236건에 달하였다.⁵⁶⁾ 예인과 손님, 직업여성과 손님의 경계를 넘어 연애는 하지만 남성들에게 있어 기생은 ‘연애’의 대상이지 ‘결혼’의 대상은 아니었다. 이러한 비관적 상황이 기생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⁵⁷⁾ 여성 직업인을 소개하는 1928년 기사문에서조차 기생은 “노래와 춤을 팔려고 하다가 몸을 희생”하고, “능라를 감고 금, 은으로 장식해도 마음은 거친 사막”과 같으며, “돈 벌자는 것이 유일의 표어”인 무리로 그려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기생하는 여성”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다.⁵⁸⁾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34년 전국적으로 전개된 기생들의 구제 활동은 기생을 향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욕망 표출의 장’으로 해석된다. 이는 비슷한 시기 일부 기생들에 의해 집필된 『장한』 기사 중 “공익에 혜택을 주는 국민”으로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려는 글에 합치되는 노력이라 하겠다. 특히 “우리의 품격을 향상케 하면

55) 「演奏로 번돈을 水害民救濟에 溫泉藝妓熱誠」, 『조선일보』, 1934.9.25.

56) 김은정, 「일제강점기 여성 이미지의 시각화-기생과 여급을 중심으로」, 『세계문화비교연구』 39, 세계문화비교학회, 2012, 13면.

57) 위의 논문, 위의 면.

58) 「돈뽕이 하는 女子職業探訪記(十七)」, 『동아일보』, 1928.3.12(위의 논문, 12면 재인용).

이것이 홀로 우리의 설움을 소명케 할 뿐 아니라 문화의 향상과 풍속의 개선에도 도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金道深과 “우리 여성들이 분투한 힘이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할 뿐 아니라 범위를 넓혀 세계에 미치도록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鄭柳緣의 글은 1934년 기생들의 구제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⁵⁹⁾ 특히 후자는 “새 풍조에 정신이 깨인 신여성들이 조선 여자의 껍질을 벗고, 남자와 같이 모든 운동과 사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십여 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한 사업에 전력을 다해 헌신하는 여성들이 없음을 한탄하였다. 당시 새로운 운동 혹은 사업을 이끌었던 이른바 ‘신여성’의 예는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이어받은 서울 여학생 시위운동, 이후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에 참여하며 민족 해방과 여성 해방 이상을 표명한 여성,⁶⁰⁾ 페미니스트 담론을 잡지에 소개한 여성 언론인들⁶¹⁾ 『여류가곡집』 출판을 계기로 ‘전문’ 음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표명한 이화여자전문학교 졸업생⁶²⁾ 등이었다. 鄭柳緣의 글에서 ‘신여성’으로서 기생 자신들의 여성상을 상기시키며 남성과 어깨를 견주며 사회운동이나 사업에 뛰어든 다른 ‘지식층’ 여성들과의 연대점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⁶³⁾

앞서 강조하였듯이 1934년 삼남 수재민 구제 활동의 특징 중 하나는 구제 공연 개최에 있어 피해 지역인 삼남은 물론 서북 지방 기생들의 선전이 두드러진 점이었다. 따라서 공익에 힘쓰는 신여성으로서의 기생의 모습을 알리고픈 욕망은 『장한』을 출판하고 앞서 소개한 글을 집필했던 경성 기생 혹은 당시 경성 기생과 함께 팔목할 만한 활동을 남겼던 평양 기생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기생이 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요컨대 1934년 구제 활동은 1920년대부터 자본주의를 적용하여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던 전국 극장 내 전통음악 공연문화와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전국 기생이 사회적 인정 욕망을 표출한 결과물로 해석된다.

59) 김도심, 「인명재천」, 『장한』 1, 1927, 40~41면; 정류록, 「내가 바라는 여성」, 『장한』 1, 1927, 59면(서지영, 앞의 2006 논문, 365~366면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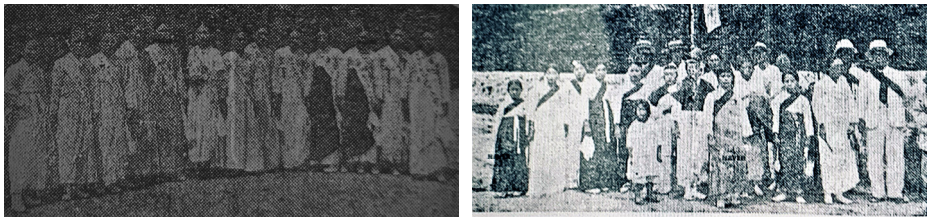
60) 이상경, 「1930년대의 신여성과 여성작가의 계보 연구」, 『여성문학연구』 12,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참조.

61) 김수자, 「1920·1930년대 《신여성》 여성기자의 여성담론 구성방식」, 『한국근현대사연구』 74, 한국근현대사학회, 2015 참조.

62) 신혜승·김은영·공애희, 「이화여자전문학교의 『여류가곡집』(1932) 출간과 그 의미」, 『이화음악논집』 25(1),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21 참조.

63) 위의 논문, 366면.

공익에 힘쓰는 신여성으로서의 기생의 모습을 알리고픈 욕망은 1934년 삼남 수재민 구제 활동에 참여한 기생을 묘사한 사진에도 함축되어 있다. <사진 1>에 보이는 당시 기생들은 참으로 결연하고 당찬 모습이다. 쪽 머리를 하고 단색의 한복을 입어 단정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무엇보다 정면을 바라보고 서 있으며 리본 띠를 상체에 사선으로 메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제시한 사진으로는 판명이 어려우나 기생의 구제 활동을 묘사한 다른 사진들⁶⁴⁾을 확인한 결과 리본에 ‘○○권번’ 등의 소속 정보가 명시되어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출처: 「삼남수재구제에 活動하는 演津藝妓들」, 『조선일보』, 1934.8.15; 「本社奉化支局主催의 水海救濟演奏會宣傳隊出發光景」, 『조선일보』, 1934.9.5.

<사진 1> 청진(左), 목포(右) 기생들로 구성된 1934년 삼남수재민구제공연 선전대

<사진 1>의 구도와 분위기는 1934년 수재민 구제 활동에 참여한 여타 기생 사진들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두 줄로 정렬하여 앞에 있는 기생들이 앉아서 찍은 사진도 있다. 그러나 정면을 바라보고 띠를 들었으며 단정한 단색 한복에 쪽을 진 머리의 모습은 똑같다. 다른 구제 활동에 참여한 개인 혹은 단체를 찍은 사진과 구도 면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으나 차림새와 함께 기생이라는 정보를 알리는 띠를 두른 점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⁶⁵⁾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개인적으로 수재민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던 달성권번 기생 김월향과 정소도에 관한 기사⁶⁶⁾에서도 각각의 정면을 바라본

64) 예를 들어 「三南水災에 活動하는 人士들」, 『동아일보』, 1934.8.17; 「同情演奏에 出演한 妓生一同」, 『조선일보』, 1934.09.12; 「寫眞」, 『조선일보』, 1934.09.15; 「三南水害救濟 同情演奏盛況」, 『조선일보』, 1934.10.2. 참조.

65) 구제 활동에 참여한 지역 ‘청년회’나 ‘부인회’를 묘사한 사진(예를 들어, 「안에서 밖에서」, 『동아일보』, 1934.8.29; 「寫眞」, 『조선일보』, 1934.9.4. 참조)에 리본을 메고 있는 이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66) 「水害救濟에 발벗고나선」, 『동아일보』, 1934.8.29.

얼굴 사진을 위, 아래로 실었다. 마치 요즘의 명함사진과 같이 결연하고 단정한 모습을 강조하였다.

구제 활동 기사에 삽입된 사진 속 기생의 모습은 당시 사진, 사고에 얽힌 기생을 묘사한 기사 혹은 소설 속 기생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⁶⁷⁾ 〈사진 2〉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애환의 삶을 대변하는 기생으로 그려진 기사나 소설 속에 삽입된 기생의 이미지는 정면이 아닌 측면을 바라보고 있다. 혹은 다른 행동을 하는 움직임을 묘사하고 있어 각 기생의 얼굴을 정확히 인식하기 힘들다. 전반적으로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많아 우울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는 점도 또 다른 공통된 특징이다. 일본 화가에 의해 그려진 기생의 모습도 측면의 먼 곳을 바라보거나 시선을 아래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면을 다룬 기생 관련 기사나 소설 속 기생 이미지와 다를 바 없다.⁶⁸⁾



출처: 「옛재서 기생이되었나 흥타령에평터궁도 生活難때문」, 『조선일보』, 1934.8.21.

〈사진 2〉 생활고에 고통을 겪고 있는 기생에 관한 기사에 삽입된 기생 사진

67) 「女子의 마음 (14)」, 『조선일보』, 1935.10.6; 「名妓公判에 五百傍聽客이 殺到한 法廷 밖 光景」, 『동아일보』, 1935.10.12; 「醉香」, 『조선일보』, 1934.12.20.

68) Shin Min-jong, "Kisaeng in Painting: Representation of Korean Beauty by Japanese Artists in the Colonial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and Multidisciplinary Studies* Vol. 4, No. 3, 2017, pp.1~13 참조.

정리하건대 1934년 삼남 이재민을 돕기 위한 ‘전국’ 기생들의 구제 활동은 『장한』에도 표출된 바 있는 사회에 보탬이 되는 한 국민 혹은 신여성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 자의식이 담긴 운동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구제 활동을 알리며 공익활동에 찬사를 보낸 기사문에서조차 여전히 이들을 부정적 이미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부분을 엿볼 수 있었다. 1934년 기생들의 삼남 수재민 구제 활동은 도움을 직접 받았던 수재민과 구제 활동에 후원 혹은 주축로 참여한 신문사 인사들에게 기생을 향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에 일조하였으나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전히 떨쳐 버리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V. 맺음말

1934년 삼남 수재는 ‘최악의 수해’로 기록된 재해 중 하나로 광범위한 삼남 지방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사건이었다. 국내 최초로 비행기 취재를 통해 생생한 참상이 전국에 알려지며 구제 손길이 이어졌고 이 중에서도 기생조직은 약 3개월에 걸쳐 전국 규모의 구제 활동에 동참하였다. 구제 활동에 참여한 권번은 약 30곳에 달하여 수재로 인해 기근의 선상에 해매고 있던 동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대부분의 구제 활동은 공연을 개최하여 수익금을 수재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물자 보급과 방문을 통해서도 기생의 수재민을 위한 활동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특히 구제 공연 개최에 피해지인 삼남과 서북 지방 기생의 공헌이 두드러졌다.

공연, 의연품 지급, 방문 등을 통한 기생의 1934년 삼남 수재민 구제 활동은 주축 혹은 후원을 담당했던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사에 자세히 기록되었다. 관련 기사문에 기생은 “공익에 보탬이 되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으며 구제 활동에 뛰어들기 전 정면을 응시한 의연한 모습의 기생 사진은 당시 연애로 인한 자살, 도주, 치정극, 사기, 폭행 등의 사건, 사고 속에 자주 묘사된 기생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1934년 기생들의 구제 활동은 『장한』 일부 글에서도 표출된 바 있는 신여성으로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한 국민으로서의 이미지 선전 욕망을 담고 있었다. 더구나 『장한』 출판을 포함하여 괄목할 만한 활동 기록을 남겼던 경성이나 평양 기생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삼남, 서북 지방 기생을 포함한 전국 기생 모두가 이러한 사회적 인정을 갈망했으며 1920년대부터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던 전국 극장 내 전통 공연문화와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그 욕망을 표출한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구제 활동을 알리며 찬사를 보내는 신문 기사에서조차 여전히 이들을 부정적 이미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934년 기생들의 삼남 수재민 구제 활동은 도움을 직접 받았던 수재민과 구제 활동에 후원 혹은 주최로 참여한 신문사 인사들에게 기생을 향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에 일조하였으나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전히 떨쳐 버리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기존 관습을 타파하는 새로운 성 역할 정체성, 삶의 태도와 방식, 임무를 가진 여성들을 모두 신여성의 범주로 이해⁶⁹⁾한다면 본 연구에서 밝힌 전국 기생들의 이재민 구제 손길은 단연 신여성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요컨대 1934년 기생의 삼남 수재민 구제 활동은 일제강점기 다양한 음악적, 사회적 활동을 펼치며 사회적 인정 욕구를 표명한 기생의 신여성으로서의 면모를 예증하는 것이었다. 기생들의 이러한 행보가 얼마만큼 신문 독자층, 더 나아가 일반 대중의 기생을 향한 인식을 변화시키게끔 유도하였는지, 그녀들을 제도적, 법률적으로 통제하던 일제와는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기생조합의 운동을 가능케 한 ‘주체’ 또는 기생조합의 운동을 주도한 ‘인물’을 파악하는 작업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더불어 가장 먼저 1934년 구제 활동을 확대해 나갔던 삼남 지방 기생의 1930년대 활동 전반을 당시 지역 언론 매체 활성화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연구도 향후 필요한 작업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가 신여성 담론에 관한 관심을 도모하고 지역 기생 활동사를 추적하는 심층 연구로 이어지기 바람에 본 연구를 마친다.

투고일: 2022.07.24

심사일: 2022.08.29

게재확정일: 2022.09.20

69) 다양한 양상의 신여성에 관하여는 문옥표 외, 『신여성: 한국과 일본의 근대 여성상』, 청년사, 2003 참조.

참고문헌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장한』

권도희, 『한국 근대음악 사회사』, 민속원, 2004

문옥표 외, 『신여성: 한국과 일본의 근대 여성상』, 청년사, 2003

신현규, 『꽃을 잡고』, 경덕출판사, 2005

_____, 『기생 이야기』, 살림, 2007

_____, 『기생, 조선을 사로잡다』, 어문학사, 2010

강소영, 「기생의 은유화 방식을 통해 본 기생의 현실과 그들의 욕망」, 『한국고전연구』 2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권도희, 「20세기 기생의 음악사회사적 연구」, 『한국음악연구』 29, 한국국악학회, 2001

김기동, 「중일전쟁 발발 직후 고사카 사다오(小坂貞雄)의 「조선의 항공사업(朝鮮の航空事業)」 서술과 그 목적」, 『공사논문집』 71(1), 공군사관학교, 2020

김수자, 「1920·1930년대 《신여성》여성기자의 여성담론 구성방식」, 『한국근현대사연구』 74, 한국근현대사학회, 2015

김은정, 「일제강점기 여성 이미지의 시각화-기생과 여급을 중심으로」, 『세계문화비교연구』 39, 세계문화비교학회, 2012

박애경, 「기생을 바라보는 근대의 시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서지영, 「식민지 시대 기생 연구 Ⅲ-기생 잡지 〈장한〉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_____, 「식민지 시대 기생연구 Ⅱ-기생조합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고전문학여성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신혜승·김은영·공애희, 「이화여자전문학교의 『여류가곡집』(1932) 출간과 그 의미」, 『이화음악논집』 25(1),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21

이동근, 「1910년대 妓生의 존재 양상과 3·1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3

_____, 「의기 수원 기생들의 3.1운동」, 『수원 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 가족여성정책과, 2008

- 이상경, 「1930년대의 신여성과 여성작가의 계보 연구」, 『여성문학연구』 12,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 이재옥, 「1930年代 妓生의 音樂活動 考察」, 『한국음악사학보』 30, 한국음악사학회, 2003
- 황미연, 「일제강점기 기생의 사회적 활동과 그 역사적 의미」, 『민속학연구』 28, 국립민속박물관, 2011
- _____, 「전라북도 권변의 운영과 기생의 활동을 통한 식민지 근대성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 논문, 2010
- Shin Min-jong, “Kisaeng in Painting: Representation of Korean Beauty by Japanese Artists in the Colonial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and Multidisciplinary Studies* Vol. 4, No. 3, 2017

Relief Activities of *Gisaeng* for the 1934 Southern Provinces Flood Victims

Choi, Hee-young

This study examines *gisaeng*'s activities to help the 1934 flood victims in Korea's Southern Provinces. The flood, recorded as one of the worst disasters in Korean history, had a damaging impact on residents of southern parts encompassing Jeolla, Gyeongsang, Chungcheong. As its terrible scenes—they were filmed from the helicopter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were revealed to the public, a series of relief supplies were sent to the victims. Among such moving stories, the *gisaeng*'s three-months-long relief activities are noticeable. *Gisaeng* from almost thirty *gwonbeons* (institutions set up for the training and oversight of *gisaeng*) participated in relief activities for the flood victim, giving a great deal of help to the locals stricken with famine. *Gisaeng* hosted a series of benefit concerts to send all the proceeds to the victims. Also some *gisaeng* helped the 1934 victims by providing relief money/products and even visiting the affected areas. It is noteworthy that not Gyeongseong or Pyeongyang *gisaeng*, who have been known as the most popular ones, but *gisaeng* of the southern parts and northwestern areas markedly contributed to hosting the benefit concerts.

All these relief activities of the *gisaeng* were recorded in newspapers like *Maeil-sinbo*, *Donga-ilbo*, *Joseon-ilbo*, which were a (co)-host or sponsor of the *gisaeng*'s benefit concerts. In the articles, *gisaeng* were described as “those who are contributing to the public interest” with photos of them staring straight toward the camera and standing in a resolute manner. Such images are totally different from other *gisaeng* photos inserted in articles mostly illustrating disgraceful incidents (e.g., suicide, runaway, enchantment, fraud, violence) that had often happened to *gisaeng*.

The 1934 *gisaeng*'s relief activities reflect the desire of *gisaeng* to establish their image as new women (*sin yeoseong*) and citizen that benefit society, which is obviously expressed in the journal *Janghan* edited and published by *gisaeng* themselves. Ironically the newspaper articles documenting the relief activities still tend to have negative

connotations of *gisaeng*. The 1934 *gisaeng*'s social activities played a role in creating positive *gisaeng* images at least among the beneficiaries and newspaper officials; but not to the point where they could erase negative images that had long been associated with *gisaeng*.

Key Words : *gisaeng*, *gwonbeon*, Korea in the early 1930s, relief activities, benefit concert for flood victims, relief supplies, *Janghan*, new women

